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 6.23%로 선진국에 비해 양호

- 최근 미국의 자본지원프로그램(Capital Assistance Program)에 따른 Stress Test*의 기준 비율로서 단순자기자본(TCE:Tangible Common Equity) 비율이 활용되고 있음.
 - 이는 보통주 중심의 자기자본(우선주 및 무형자산을 제외)을 총자산(무형자산 제외)으로 나눈 비율로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자본비율을 산출한 개념임.

-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TCE 비율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단순자기자본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며, 현재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시 BIS비율 및 Tier1비율과 함께 자본적정성 부문 핵심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음.
 - 자본적정성 비율은 자기자본의 범위 및 총자산의 산출 방식에 따라 BIS비율, Tier1 비율 및 단순자기자본(TCE)비율 등으로 구분함.

- '08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6.23%로 국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, 유럽 등의 선진국 은행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임.

구 분	TEC 비율(%)
미 국	씨티(1.5), 뉴욕멜론(1.6), 스테이트스트리트(2.4), US뱅크프(2.6), BOA(2.8), JP모건(3.8), 모건스탠리(4.4), 골드만삭스(4.9), 쉐르러스트(5.0), 캐피탈원(7.5)
유 럽	UBS(1.1), 도이치(1.2), 바클레이즈(1.3), RBS(1.6), BNP(2.1), Fortis(2.4), 코르메즈(2.9), Standard Chartered(3.7)
일 본	미즈호코퍼레이션(1.4), 미쓰이스미토모(2.5), 도쿄미쓰비시UFJ(3.2)

- 금융감독원은 향후 경기침체 등으로 자산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BIS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(Tier1)비율과 함께 단순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변동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임.

(국내은행의 단순자기자본(TEC) 비율 현황,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건전경영팀, 3/9)